

- 주요 뉴스: 미국 연준 월러 이사, 향후 수차례의 0.5%p 금리인상을 지지
 - EU 정상회의, 부분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. 헝가리 등은 원유수입 가능
 - 독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사상 최고치. ECB의 긴축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 - 중국 상하이시, 예정대로 6/1일 경제봉쇄 해제를 시작할 계획
- 국제금융시장: 유럽은 중국 경제봉쇄 해제 기대 등이 영향

유럽 주가 상승[+0.6%], 달러화 약세[-0.3%], 독일 금리 상승[+9bp]

 - 주가: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
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 경기 개선 기대와 기술주 강세 등으로 0.6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의 금리인상 전망 강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원인
유로화 가치는 0.4% 상승, 엔화는 0.4% 절하
 - 금리: 미국 채권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
독일은 5월 소비자물가의 사상 최고치 기록 등으로 9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35.9원, -2.7원) 0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5/30일	5/27일	전일대비			5/30일	5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휴장	4,158.2	-	국제 금리 10y	미국	휴장	2.74%	-
	유럽	446.57	443.93	0.59%		독일	1.06%	0.96%	9bp
	중국	3,149.1	3,130.2	0.60%	CDS 5y	한국	43bp	46bp	-3bp
	일본	27,369	26,782	2.19%		중국	68bp	71bp	-3bp
	한국	2,669.7	2,638.1	1.20%	위험 지표	EMBI+	-	391	-
환율	달러지수	101.36	101.67	-0.30%		VIX	휴장	25.72	-
	유로화	1.0779	1.0735	0.41%		WTI유	휴장	115.07	-
	엔화	127.59	127.11	-0.38%	원자재	구리	휴장	430.7	-
	위안화	6.6614	6.6994	0.57%		금	1,855.2	1,853.7	0.08%
	원화	1,238.6	1,256.2	1.4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연준 월러 이사, 향후 수차례의 0.5%p 금리인상을 지지

- 물가상승률 2%라는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해서 0.5%p 금리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. 최근 노동시장 여건이 양호하기에 정책금리가 상승해도 급격한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
- 또한 연말까지 정책금리를 중립금리(3월 기준 2.5% 내외 추정)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.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지만, 여전히 연간 물가상승률이 4% 이상이며, 단기간 내 물가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
- 월러 이사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와 함께 대표적인 매파(hawkish) 인물로 분류. 참고로 블라드 총재는 금년 말 정책금리 3.5% 도달을 주장하는데, 이는 향후 모든 FOMC에서 0.5%p의 금리인상을 의미
- 한편 최근 다수의 위원들은 6월과 7월에 각각 0.5%p 금리인상을 단행하고, 이후 9월 FOMC 전까지 관련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. 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연말에 2.5~2.75% 범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7월과 9월 0.25%p의 금리인상 필요

-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5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,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. 이번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0.5%p 인상 주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

■ EU 정상회의, 부분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. 헝가리 등은 원유수입 가능

- 관계자들에 따르면,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동의. 하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게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,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
- EU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역시 단기간 내 완전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높지 않다고 발언. 한편 이날 러시아는 자국이 원하는 형태의 결제 지급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

■ 독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사상 최고치. ECB의 긴축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- 해당 상승률은 8.7%로 전월(7.8%) 및 예상치(8.0%) 상회. 이번 결과는 ECB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긴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이 될 전망. 최근 단기 자금시장에서는 ECB가 연말까지 113bp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
- 시장에서는 7월 혹은 9월 예금금리의 0.5%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. 한편 린트너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에,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종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

■ 중국 상하이시, 예정대로 6/1일 경제봉쇄 해제를 시작할 계획

- 6/1일(수)부터 다수의 시민들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,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. 하지만 시 당국은 기업활동 재개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

■ 일본은행 총재, 급격한 엔화 약세의 핵심 요인이 통화정책이라는 주장에 비동의

- 구로다 총재는 최근 엔화 약세에 통화정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요 원인이 통화정책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원인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

■ 자산운용사 Amundi, 중국 증시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

- 최고투자책임자 Vincent Mortier는 금년 1/4분기에 중국 증시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장했으나, 경제봉쇄 해제 등으로 이제는 좀 더 강세장(bullish)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발언. 지금은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고 주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30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: -21.1, 4월(-22), 예상치(-21.1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3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FHFA 주택가격지수, 3월 S&P/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
- 미국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,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
- 중국 5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, 일본 4월 소매매출 및 실업률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중국 경제봉쇄 완화 등에 따른 유가 상승,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될 소지 - WSI**
(Oil Prices Hit Two-Month High as China Eases Lockdowns)
 -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(5/30일)이 장중 120달러를 상회하는 등 오름세 지속. 중국의 경제봉쇄 완화로 인한 수요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상승세 유지.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 등도 유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
 - 미국의 경우 이미 정제시설 부족으로 가솔린, 디젤 등 원유 관련 제품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유가의 추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소지. 이는 연준으로 하여금 강력한 금리인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
- **암호화폐 시장,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 - 블룸버그**
(When Crypto's Tulipmania Meets The Real Economy)
 - 최근 암호화폐와 실물경제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. 일례로 일부 신생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. 또한 벤처 펀드와 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탈중앙화 금융을 통한 대출을 준비
 -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관련 분야가 성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한 대출도 확대된다면 암호화폐 가격 급락 시 실물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. 만일의 경우 '08년 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의 대응이 중요
- **미국의 노동공급 부족, 물가상승 초래하여 여름휴가 관련 소비 위축될 우려 - WSI**
(Summer Worker Shortage Means Things Will Be Closed. Again)
- **러-우 전쟁,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 - Financial Times**
(The west must hold its nerve on Ukraine)
- **중국 정부의 통계조작,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 - WSI**
(China's Slowdown Poses Credibility Test for Economic Data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